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의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니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총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오늘 4부예배 후 공동의회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 실시

오늘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된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교회의 장로는 다 음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문 자라야 할지라"(딤후 1:6). 또한 베로 사도도 장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교단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다(벧전 5: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말씀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되며 마땅히 하나님의 열심이여야 한다. 이번 투표에 임하는 총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듯이, 진정으로 기도하며 공동의회에 적극적으로 임할길 바란다.

'주간충현 600호'를 맞이하면서

들어면서

성경이 기록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본질적인 목적으로 특별 계시, 즉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다(창34:27, 요20:21, 롬15:4). 그리고 기능적인 목적으로 그의 백성을 '가르치려고' 기록되었다(창24:12, 딤후3:16,17, 고전10:11, 딤후3:16,17).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그의 백성을 훈련함 없이 거룩한 성으로 결여하게 만든다. 사실 성경 본만 아니라 모든 글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마름면서

"주간충현 600호"를 만들어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주간충현'에 대한 시각도 여러 가지이고, 그에 따른 반응도 여러 가지이다.

한편 까맣게 매주일 오후, '주간충현'을 편집하기 위해 그간 잊고 모였던 우리에겐 고민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주간충현'을 발간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간충현'을 대하는 이들의 시각과 반응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 오직 한 영혼

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의 백성답게 살게 할 목적으로 고민하며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

어린 교구에서는 '주간충현'을 전도용으로 사용한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한때 편집실에서는 전도자를 만날 만큼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다가 '주간충현'을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 충현의 정서와 5대 목표에 따른 사역이 잘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오면서

'주간충현'을 만들고 있는 지체들은 가끔씩 매주일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할하면서 슬며시 웃곤 한다. 아직도 글을 정작하기가 쉽지는 않은 까닭이다. 가능하면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되었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글들을 쓰고 싶은데, 행사보고 형식으로 기고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이 고통의 후미진 그늘에서 울고 있다가 이곳에 실린 글을 읽고 일어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까닭에 이번 주일 오후에도 사모하는 '주간충현'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들이 한 테이블로 모여들 것이다.

(주간충현 편집실)

제32대 장로 · 제13대 집사 제41대 권사 임직예배 이번 주 수요일 2부 예배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단에 동참하는 성심과 결단으로
회합이나 선물은 일체 금지

지난 6개월 동안 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이번 주 수요일 2부예배 중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가지게 된다. 임직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할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오직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옷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세워야 할 자들이다.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한분도 세상의 명예를 허락하신 일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임직자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범을 배우야 한다. 양들을 위해 밤을 지새며, 양들을 위해 수고하고, 때때로 도전하는 약한 권세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일이 지도자들의 몫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피차 그리스도의 정을 나누어질 마음으로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자.

제직 앨범 사진촬영

2001년도 제직앨범 제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촬영하고자 한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노력되는 일인도록 촬영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 ① 촬영 대상: 45주년 제직앨범에서 누락된 제직 / 2000년 도 신구 임명 집사(1931년 이후 출생 자)
- ② 촬영 기간: 11월5일(주)부터 12월10일(주)까지 주일 만 촬영
- ③ 촬영 시간: 주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30분 사이에 방문하여 촬영할 것
- ④ 촬영 장소: 선교관 406호 홍보실
- ⑤ 주의 사항: 촬영필터를 지킬 것(필터를 넘기면 더 이상 받지 않음) 45주년 제직앨범(정식앨범)에 나 있는 제직은 다시 찍지 않음, 사진을 가지 오는 것은 받지 않음.

믿음의 삶을 조영하는 금요집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 '무엇이 문제인가'

그동안 금요집회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주제를 대신하여 지난주부터 '기독교의 적용'에 대한 주제를 배우게 되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말씀에 근거하며, 말씀 안에 감추어진 제사를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의 양태들이 이곳 저곳에서 보여진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해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지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 앞에서 조명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깨트리고 성숙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계속적으로 금요집회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진리를 향해 준비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자. 매 시간마다 배우는 말씀에 대하여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예배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자.

독자 칼럼

때가차매 하나님이 그아들을 보내사(갈4:4)

김교 성 (목사, 16교구 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예언들에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바로 예언되었다.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여년 전까지 성경 곳곳에서 계속 되었다. 예언에서부터 시작된 오실 메시야 사상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간절한 소망으로 자리잡게 된다. 저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언되었던 메시야가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인 모든 요인들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정치적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있던 때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복하고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통일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제국의 끝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큰 도구가 필요하였는지 복음은 삼 시간에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었던 희랍어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고대 세계의 찬란한 문화와 그들 아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정적 근심으로 가득차게 되었고 세 세계가 혼란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인간들에게 복음의 소리는 너무나도 반가웠다. 종교적으로는 그동안 열심히 믿었던 로마의 고대 신들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죽어가는 로마의 신들은 마음이 상했어는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수가 없었다. 이러한 때에 복음의 소식은 저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웠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의 때가 차 갈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인 미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암흑속에서 도약하게 나니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나온 유다 문헌이 유대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주님의 초림은 인간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일어난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에 정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시대의 소망가운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Significance of the Meal

(1 Corinthians 11:23-26)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In today’s Bible verses Paul reminded the Corinthian Church about the original intent of the Eucharist and agape love of God. He recalled the actual institution by the Lord Jesus Himself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His strong reference to Judas may have been a non-incidental challenge to the Corinthians concerning their own behavior. Like Judas, they were not taking Christ’s love seriously. As such, He explained to them what he personally received from the Lord Himself,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v. 23). I cannot be sure how Paul received God’s revelation, but I do know that he did not receive the Gospel from man. He was not taught by man about the Gospel. The Gospel came to Paul through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For I neither received it from man, nor was I taught it, but I received it through a revelation of Jesus Christ” (Gal. 1:12).

Paul emphasized the basic objective of the Lord’s Supper because the Corinthian Church needed to know what this serious meal was all about. You, too, should fully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this meal. What is it? This meaning, behavior, and objective of the Lord’s Supper is the Lord’s death! In other words, the meaning is about Jesus’ death, your behavior is about remembering Jesus’ death, and the objective is to proclaim Jesus’ death. These three all important things the Corinthian Church did not understand. These three all important things are what I would like to explain step by step.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v. 23). Paul received directly from the Lord that He “took bread”. What does “took bread” mean? It means His body. Jesus took His body,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v. 24). Isn’t that serious? After Jesus had given His body, He prayed and gave thanks for it. Then, He broke His body and proclaimed its remembrance. Jesus Himself was so serious about His own body that He took His body, He prayed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 25). He explained what the Old Testament had mentioned, “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Jer. 31:31). Amen! Indeed, the days of coming

same meaning as today’s verse 26, Jesus asks us to remember His death and emphasize His second coming. In other words, His covenant is going to be finished when He returns. Because He died, the second part of the covenant begins. We call it the age of grace because His blood, only His blood, provides the way for humans to get to heaven. And when God determines, Jesus Christ will return to bring all His children together in heaven.

“Clean out the old leaven so that you may be a new lump, just as you are in fact unleavened. For Christ our Passover also has been sacrificed” (1 Cor. 5:7). Paul urges that the Corinthians practice correspond to their position. Christ was already sacrificed, and, just as Passover was followed by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so should the Corinthians, who were already cleansed, now walk in holiness. Through Christ’s death, men and women can know the glorious freedom of forgiveness and have a personal knowledge of God. Those who enter this personal relationship, this covenant relationship with the Lord, naturally enter at the same time into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hence a new lump. Thus, the covenant community is established, and that is precisely what the Corinthians were understanding by their behavior. Same as this church. There are lots of times for us where the death of Christ was not central, the return of Christ was not dominant, and the love of Christ was not in control. Worldly success and personal enjoyment took center stage. Oh, how we are bad. Now, we must come to His table for His meal. He gave us His body, His blood, totally nothing is left. He made a new covenant and asks us to be serious when we partake of Him. He asks us to remember His body, His blood, and His death at this meal. Remember God’s love. Remember God’s grace. Not only that, proclaim His death until He, the Messiah,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returns. Amen! 

*Now, we must come to His table
for His meal. He gave us His body, His blood,
totally nothing is left. He made
a new covenant and asks us to be serious
when we partake of Him. He asks us to
remember His body,
His blood, and His death at this meal.
Remember God’s love. Remember
God’s grace.*

and gave thanks for His body, he broke His body, and He proclaimed His body. After He performed these four key elements, He made a beautiful conclusion by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Isn’t that wonderful? Doesn’t it show you the importance of the Lord’s Table? Can you see the significance and seriousness of this precious meal? Unfortunately, the Corinthian Church, like Judas, wasn’t serious about the Lord’s Supper. And Jesus adde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men! Jesus doesn’t want your mental remembrance. He wants you to practice this in reality. This day was historically set aside as Passover, when the Israelites departed from Egypt. Similarly, you have to take off from the sinfulness world and enter by faith into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Jesus not only “took bread”, but at this Table He also took the cup,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came when Jesus took the cross. The cup which He held represented the New Covenant, the covenant made by His blood. Jesus really explained God’s promise given in the Old Testament. This same table, this same cup, stands before you now,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That’s the significance of this meal!

Paul explained that this covenant is about Jesus’ death and remembrance, plu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He also explained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second coming. He emphasized His death, resurrection, and second coming so that you will remember the significance of all three at the Lord’s table. Jesus told us, “for I say to you, I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and “for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Lk. 22:16, 18). Basically, this is the



김성록 목사

성찬의 기원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만찬에 대한 최초의 취지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상기시켰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은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주 예수 자신에 의해 실제로 제정되었던 것이었음을 회상하였습니다. 가롯 유다에 대한 죄상의 강한 언급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그릇되게 행하는 것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유다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개인적으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23절).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사람에게 의해 가르침 받지 아니하였습다.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1:12).

성찬의 목적

바울은 주의 만찬의 기본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진지한 만찬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만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의미와 시행 그리고 목적은 주의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미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의 죽음을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모든 중요한 것들을 고린도교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중요한 것들이 제가 하나씩 설명해 가고 싶은 것들입니다.

떡의 의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23절). 바울은 "떡을 가지신" 주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떡을 가지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떡의 물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

라"고 하셨습니다. 진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후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자신의 몸을 떼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자신은 그의 몸을 취하시고, 그의 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의 몸을 나누시고, 그의 몸을 선언하신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네 가지의 핵심 요소를 수행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라는 말로 이름을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놀랍지 않

성찬의 의의

(고전 11:23-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25절). 예수께서는 구약이 언급한 것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렘31:31). 아멘! 참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언약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예수께서 손에 드셨던 잔은 그의 피에 의해 형성된 '새언약'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약

본적으로 이것은 오늘의 본문인 26절과 동일한 의미인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기억할 것과, 그의 제임을 강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언약은 그가 다시 오실 때만 성취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고, 언약의 두번째 부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만이 인간을 위해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자녀들을 모두 함께 하늘나라에 불러 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정한 성찬으로의 초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5:7).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곳에서 일치를 실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마치 무교절 뒤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듯이, 그리스도는 이미 희생되셨으며, 이미 정결함을 입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제 거룩하게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용서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깨닫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격적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자들은 저절로 동시에 새로운 덩어리로서 서로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언약 공동체가 제정되었고,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만찬을 시행함으로써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다. 우리들에게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곳이지만, 그리스도의 제림이 최대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되지 않는 곳인 때가 많습다. 왜 상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즐거움이 중심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행된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만찬을 위해 그의 식탁으로 와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의 식탁에 참여할 때 진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식탁에서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억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 뿐 아니라 구세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는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의 식탁에 참여할 때

진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식탁에서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억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 뿐 아니라 구세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식탁의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식사의 의의와 진지함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고린도교회는 유다처럼 주의 만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로 다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여러분의 정신적인 기억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제로 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 날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떠난 유월절을 갱신한 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잔의 의미

예수는 단지 '떡을 가지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만찬의 식탁에서 잔을 취하셨습니다. "저녁에 또한 이와 같이 잔

속이 구약성경에 제시되었던 것임을 실제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그 날과 같은 식탁이요 동일한 잔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의의입니다!

성찬에 담긴 언약

바울은 이 언약이 예수의 죽음과 기념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그는 또한 예수의 부활과 제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이 주는 세 가지 모든 의미인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림에 대해 기억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까지 포도에서 난 열매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눅22:16,18). 기



제2차 의료선교의 날을 마치고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는 10월 22일 (주인) 서울시의 후원 아래 외국인들을 위한 무료진료행사를 가졌다. 지난 6월에도 우리 교회 의료선교부 주책로이 행사를 가진 적이 있다. X-레이,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피부질환 검사 등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0개국 230여명의 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차량으로 교회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나라별로 번호를 배정받아 순서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 각각의 검사가 끝난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으며 서로 먼저 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어 보였다. 오전 검사를 마치고 시(市)의 의료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교사와 외국인들 그리고 기독교 의료인들이 함께 4부 예배를 온케롭게 드렸다. 예배 후 다시 오후 식사를 이루어졌고 오후 3시까지 모든 검사가 마쳤다.

이번 행사에도 처음 교회에 나온 외국인인들이 많이 보였고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형제들도 나와 선생님들과 어색하지만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검사를 받기 전에 신일 카드를 작성하며 각 나라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생활조건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들에게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 일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편 서울시의 이러한 후원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 체류하며 영세 사업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구조적으로 불발체류자일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과 의료적 측면에서라도 구체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가의 이러한 배려와 관심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도전이라 확신한다.

(선교위원회)

경찰청 교회 전도집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

교정전도회
순천교도소 전도집회

지난 10월 21일이 '제55회 경찰의 날' 이었는데, 아셈(ASEM)회와 맞물려 이를 앞선 19일날 경찰의 날 기념예배를 드렸다.

경찰전도회는 말씀 중기와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땅의 경찰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 경찰상을 입고, 민족의 자랑스런 경찰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드리기를 기도하고 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각자 신장 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야만 가능함을 정형석 목사님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으로 선포하였다.

교정중앙회의장적 백목사님은 '나 때문에 경찰복을 화가 이뤄지거나 나 때문에 경찰청 교회가 부흥된다'를 같이 복창을 하게 하시며 더욱 경찰 각 개인을 통해 경찰이 복음화되길 다짐했다.

경찰청 14층에 자리한 경찰청 교회는 겨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보호하는 민족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놀라움게도 15구역과 전경, 의경 구역 등 각구역 예배에 1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어서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게 되어 경찰전도회원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한숙정 집사)

LMTC 일백수련회 및 선교지 탐사

녹아 없어질 때까지

권요섭 (LMTC 훈련생)

에양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출발했다. 출발하고 난 뒤에 소록도 근처에 위치한 나한자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쾌쾌하고 지저분한 거리를 연상했다. 너저분한 누더기를 걸친 고통스런 사람들을 연상했다. 그러나, 내 연상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에양원은 휴양지로 개발해도 좋을 정도로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갖고 있었다.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경치에 취해 잠시 잊었다. 이곳이 나한자촌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에양원 석류밭에게로 안내됐다. 그곳과의 만남은 경이였다.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물들어서 평평해진 논, 납작한 얼굴에 구멍만 두 개나 있는 코, 이빨도 없는 잇몸이 드러난 일, 휘어진 다리와 손목만 있는 손들... 어떤 분은 얼굴이 아예 흘러내려 초가 녹은 듯했다. 우리는 모두 흥것 놀라 주춤했지만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 뜻 저런스럽게 우리를 맞이했다.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교제를 이끌었다. 교제 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나한자촌들은 눈이 만다. 그리고 손도 물들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시각장애인들이야 점자성경을 보면 되지만 나한자촌들은 점자성경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암기다.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었다. 이런 경악할 만했다. 요절 암기가 아니

고 성경암기다. 예를 들어 오늘의 큐티를 하려면 외우고 있던 성경의 한 부분을 묵상하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부와 명예와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한 분은 판사를 꿈꾸던 엘리엇었는데 나한자 진단을 받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며 자신에게 나뉘는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신들이 못하는 선교를 잘 해 달라고 부탁했다. 녹은 듯 보이는 그들의 얼굴 위로 웃음처럼 광채가 보이는 듯했다.

그들과 헤어지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찾았다. 천명의 나한자들을 위해 순교했으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맞이들이는 큰사랑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 순복사님 일대기 벽에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꼭 끌어안고 '넌 죽으면 안된다. 넌 죽으면 저옥에 갈테니 아직 죽으면 안된다.' 하며 우는 그림은 보는 모든 이들의 목을 매게 했다.

에양원 석구들과 순복사님의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은 LMTC 훈련생들의 사명감을 더욱 뜨겁게 했다. 우리들 역시 그들처럼 녹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을 전하러 다짐했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 보내기

선교위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선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교사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격려하기 위하여 위로하고자 성탄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탄선물을 모집하고 있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기간: 10월 1일 ~ 10월 31일
2. 권장물품: 1) 전등, 고무장, 리면 등의 식품류 2) 의류 및 신발류(사이즈는 선교위원 회로 문의) 3) 물품 선택 및 구입이 어려울 경우 선교사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4) 변질 또는 파손될 위험이 있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 제한합니다.
3. 문의: 선교위원회

사랑 그 영원한 향기

함레우아!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순천교도소 전도집회'가 지난 10월 9일 예정대로 새벽기도회를 드린후 6시 40분에 출발하였다. '주 하나님 모든 세세 대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에 별 올려퍼지는 처성 주님의 권능 우우에 찾네' 40장 찬송을 드리며 추수가 끝난 들녘에 간간히 겨두지 못한 곡식이 널려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입술에서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다. 순천교도소에 도착하여 집회장에 들어서니 순간 200여명의 형제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이어 준비한 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사랑 그 영원한 향기'라는 제목으로 여성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 사랑만이 새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주신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겠다'는 결신자를 위해 기도드렸다. 이어 중창대의 찬양을 드린 후 집회를 마쳤다. 집회를 마쳤을 때 회중에서 82장을 신청받아 찬양을 드렸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만 불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인데! 이 찬송을 드릴 때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찬송을 마친 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 수 있었다. 순천교도소 모든 형제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충만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정전도위원회 통신원)

주의 일꾼들

조 옥 자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요즘 우리 아이들은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낸다. 이른 아침 졸린 눈을 부비며 시작한 하루는 학교에서 학원으로 갑갑한 밤이 되어서야 돌아와서는 다음날의 이른 새벽에 잠이 드는 자들이 우리의 아이들이이다. 아슬아슬 균형잡힌 청소년기의 성장을 돕는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전에 비해 볼거리, 탈거리, 먹거리 문화는 종류가 다양해졌지만 오히려 그 나이에 있어야 할 정서는 빈약하여 메마르고 있으니, 오히려 유해한 음정적인 환경만 부쩍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 교회 고등부에는 13개의 다양한 소그룹 부서의 활동이 있다. 각 소그룹을 열거해 본다면 주일에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은 선교부, 찬양선교부(AC), 봉사부, 예배전양대, 성극부, 방송선교부(라디오), 청소년부, 성경부(chc), 편집부, 컴퓨터선교부, 영화부, 그리고 문서선교부가 그것들이며, 또한 주중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전도부(들로스)가 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약 200여명 정도 된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하여 2시 30분에 마

친다. 이후 5부예배를 끝마쳐 드릴 수 있게끔 시간安排 되었다. 다양한 소그룹들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하여 헌신하게 하여 이들을 주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소그룹 활동의 주축이 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요,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희망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평소에 주일 고등부 집회와 예배에 직접 참여하여 돕는 일을 한다. 특별히 목적이 있는 날이나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핵을 형성하며, 기독교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입시와 성적이라는 현실 앞에 이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래도 오늘의 충성과 헌신이 평생가야 할 믿음의 자재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저 대견스럽고 고맙다. 소그룹 담당교사들이 헌신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을 호소하곤 한다. 양질의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서 신앙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교사가 더 필요하다.

만평

글·그림 / 정민(minj74@jaangminn.com)

특히 10:30-37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교회의 모습도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그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공방'의 아이들

이 종 필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저희 총헌 대학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소그룹에서 봉사하며 젊음의 복음을 위해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봉공방'이라는 소그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봉공방'은 봉헌동 공부방의 줄임말입니다.

1988년도에 지금은 봉헌동 제개발 지역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곳에서 한 여전도사님께서 청소년 교회를 개척하시어,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중에는 함께 공부하도록 돕

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992년도부터 저희 총헌 대학부에서는 그 교회로 도와 '봉공방'이란 소그룹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25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월요일과 수요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매우 어렵거나 결손가정의 학생들로 20여명정도 됩니다. 학원은 다양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고 저희 대학생들이 일대일의 형식으로 매주 공부방을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총헌교회로 아이들을 초청하여 성경학교를 열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서로 부대끼며 더욱 친해지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이나 관심사에 모르는 요즘 대학생들 틈에서 우리 봉공방을 섬기는 대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이것 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때문에 타인의 유익을 위한 시간을 절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마음과 시간을 드린 원하기며, 매 주마다 오막집을 찾아와서 기쁨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 봉공방에서의 수고와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변화받고 깨어지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귀한 시간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자기부인'의 시작이며, 헌신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시작인 것을 깨닫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의 은혜로 감당하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매 그대 두려라" (갈 6:9).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 창 중 (전도사, 청년부 부지도)

공동체 개념은 신약 전체를 통하여 면면히 흐르는 신약의 주제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하신다.

소그룹은 초대 교회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개개의 지체들이 서로 쉼기고 영적 온사를 사용하게 했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자화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작은 구조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명력이 넘쳐 아직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 볼 때 사랑과 지체가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생명을 주는 공동체였던 것이다.

청년부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어 나아가고 있다. 특별히 청년1부에 속해 있는 각 사역팀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온사를 활용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한다.

청년1부에는 7개의 사역팀이 있다. 전도, 선교, 구제, 찬양, 찬양, 문서, 인터넷팀이 있다. 이 사역팀들은 각자의 사역팀 성격대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공동체를 지향하며 전도와 선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팀의 경우 기독교 문화에 관련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른 사역팀들도 그 사역팀 성격에 맞추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

특별히 올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강남역 주변 전양전도 사역은 찬양과 전도지 배포 등을 통해 그 사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전도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역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각GBS팀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선교팀은 본 교회 단기 선교 전략에 발맞추어 그 사역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다. 청년보다 올해 LMITC와 단기선교에 동참하는 인원이 자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은 바쁘다. 그들의 매일의 일과 생활을 통해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과 시간이 후에 시간을 내어 교회에 모여 이를 지향하고 있다. 새로 건축된 제2교관공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를 위해 총헌의 모든 성도들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는데 힘써 주었으면 한다.

병실에서

새로 열린 삶

15년간의 전도

김 보 라 (6교구)

제작년부터였다?
뇌종양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뇌 속에 종양이 생긴 것이지요. 왜 종양이 생기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뇌종양이라는 것은 아주 큰 병입니다. 그만큼 아프기도 하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기도를 간절히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러 차이에 들어 갈 때 너무도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수술을 한 번 더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뇌종양인 것이 알려지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수술하러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편안해져서 처음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수술 들어가기 전 전신마취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기도를 안 해주면 수술하러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빨리 들어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언니한테 "내가 죽으면 엄마가 울을 레나?" 하고 물어 봤는데 언니가 "그럴 울지, 들어갈 돈이 일만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했던 농담입니다.

역시 믿음과 기도로 병은 어느 정도 치료됐습니다. 이제 걱정해야 할 일은 학교 공부 문제였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습니다. 검정고시 보는 날이 대심방 때였습니다. 시험준비 하러 가라고 했지만 대심방 예배를 드리고 시험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험을 잘 봤습니다.

지금은 그 동안 키가 안 컸기 때문에 건강하고 키가 크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픈 동안 못 쓴 키를 키우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기도 빨리 크고 건강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 보라와 보라 어머니 최경옥 집사 (사진 왼쪽이 김보라)

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큰 아이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듯 싶었다.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던 때였기 때문에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만나봤다. 점도 몇 번을 봤지만 모른다. 그러나 큰아이의 장애는 변화가 없었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이춘하 씨가 처녀 때 교회를 다녔었다며 교회를 가보라고 했다. 교회라고 무슨 뽕죽한 수가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뽕짜리가 잠은 심정으로 교회를 다녔다.

최 경 옥 (집사, 6교구)

교회에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구원이었다. 그러나 내게 교회를 권했던 이춘하 씨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보라를 건강하게 낳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춘하 씨와 그의 남편과 잘 어울려 다녔는데 교회를 가자고 가끔 말하면 차라리 성당을 가자고 거절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이춘하 씨 가족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 가족은 환란이 참 많다. 큰 아이의 장애에 이어 보라도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마저 심하게 아프셨다.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병간호를 하자 이춘하 씨 남편이 자기만의 믿음이든 어머니를 게을리 모신 것을 주회했다. 이때 다시 한번 교회에 가자고 권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한번 가 볼까. 구경이나 가 보자" 하고는 교회를 나가 보더니 "제발은 데" 하며 계속 교회를 나왔다.

지금은 두 부부가 세례도 받고 잘 다닌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환란을 주심과 환란 속에서도 전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한다.

내 삶의 진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문 영 숙 (집사, 1교구)

지난 몇개월 재물이 작은 것과 너무도 긴 세월을 외롭고 힘겹게 살아온 것에 서럽고 안타까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왜 모른체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 불신자들과 똑같은 나였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예배, 찬송가 432장은 외식하려는 나에게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맛보게 되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게 밀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네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한소절 한소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뜨거운 눈물의 회개 가 터져나왔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고 기쁘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150). 아멘!

남편에게 드리는 편지

"하나님을 바라볼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 경 숙 (집사, 6교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 기도만 합니다. 많은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이 되면 아이들과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벅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으면 꼭 한국과 지구 사이에 부부가 서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때 당신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면 아속까지까지 합니다. 더 이상 교회 가는 것 눈치 안 보고 당신이 오히려 앞장서서 가는 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어떤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지'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는 구약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답니다. 사람을 강조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니 당연히 사람을 모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바쁜 때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언젠가 그 언젠가... 아니 곧 당신이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머리가 되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중등부 시외찬양의 밤 백일장

최우수

주께 감사드립니다

정은혜 (중등3부)

주께 감사드립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따란 가을 하늘을 주셨으니까

주께 감사드립니다
더운날 시원하게 하는
바람을 주셨으니까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기도할수 있는 입과
교회 올수 있는 두다리를 주셨으니까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를 알게 한
부모님을 주셨으니까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랑할수 있는
가슴을 주셨으니까

우수

동반자

장효영 (중등1부)

나는 몰랐다
내가 슬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나 혼자 서러운 줄 알았다
나 혼자 방황하는 줄 알았다
나 혼자 가슴 아픈 줄 알았다

그러나 비로소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에게
그렇자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을
또 그분이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음을

임선

두들김

천찬휘 (중등1부)

주님이 내 마음문에 오셨다
두들기신다
"똑똑똑"
반응이 없다
다시 두들기신다
"똑똑똑"
그래도 반응이 없다
또 두들기신다
"똑똑똑"
죄로 인해
굳게 닫힌 문을
계속 두들기신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다
힘들다 살기 싫다...
주님, 주님...
문전박대를 당하셨는데
열어주실까?
주님께 가서
두들긴다
"똑똑똑"
주님이 나오신다
그리고
그 한없이신 품으로
날 안아주신다

진리의 샘

'룻'(Luth)'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여러분들은 한밤중에 깊은 산 속을 헤매던 경험이 있으나요? 그러다가 먼발치에서 홀라 나오는 불빛을 보고 안도의 한숨과 감격에 빠져본 경험은 있으요? 저는 언젠가 기도원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이리저리 한참을 헤매다 발견한 기도원의 불빛이 어찌 그리도 반갑고 안도감을 주던지!

사사시대의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밝은 믿음의 빛을 비추는 이가 바로 룻(Luth)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시아머니를 모시고 살아 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았던 룻의 모습은 자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감동한 빛으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스러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깊은 사람이 물런 풍기는 성경이라합니다.

룻기를 읽을 때는 먼저 어려움을 만난 한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한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룻의 상황과 똑같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그녀와 동일한 상황에 놓였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구요. 미망인으로서, 게다가 시아머니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는 지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룻기에 나타나는 사건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염두에 두고 읽으시길 바래요. 언뜻 보면 다른 여인들도 종종 겪을 수 있는 상황의 하나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룻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녀를 순간순간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조각 케익 하나'

언뜻 스치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학교수업이 끝난후 난 평소애 말을 잘 나누지 않았던 친구와 집에 같이 가게 되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친구의 목에 걸려진 핸드폰에 찍혀져 있는 글을 읽게 되었다. '조각 케익 하나' 멋진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았기에 그 사연을 주저없이 물어보았다.

친구의 말은 나를 당황하게 하였다.

'옛그게 아버지 생일이었는데 주머니를 털어보니 오천원 밖에 없어 선물은 커녕 케익도 살 형편이 안되지는지라 그냥 조각 케익을 사들고 집에 갔었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집에서 항상 명랑하게 웃고 떠들던 초등학교, 중학생인 동생들이 조각 케익을 앞에두고 서로 눈치를 보더라는 것이다. 평소와 다른 동생들 행동에 마음이 아팠지만 가족들과 같이 조각 케익위에 촛불에 불 붙여 아버지를 축하해줬다'는 이야기.

그것이 감사해서 핸드폰에 찍어놓았다가 것이다. 항상 밝은 모습의 친구였는데, 항상 밝았기에 고인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친구를 돌아보니 뜻밖엔 나의 무심함과 감사하지 못했던 내생활이 오버랩 되면서 울컥했었다.

친구의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삶에 축한 것이 무어나고 물어보았다. 주님만으로 축한 삶.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안에 계신 것만으로 이미 내안이 넘치고 있음을 만족하자. 감사하자. 이 풍성한 가을을 주신것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최은아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소개

알림

1. 장학회헌금안내

오늘 1~V부에서 드림니다. 기도와 경사로
로 준비하시 바랍니다.
2. 방송실 한글 자막 협력 봉사자(전담)에
구함
송현교회 방송실에서 상설로 봉사할 한글
자막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송현교회 세례교인
문의: 552-8200(교만220), 552-4872

3. 별명 헌양대원 모집

주일5부에서 섬기고 하시는 분들을 다
의 헌양시에서 함께 주일하시
연수실
주일 5부에서 섬기고 하
목요일(11월22일부터) 19:00 오산나
4. 제1회 송현중학교 발기회 및 예비모임

일시: 오후 18:00
장소: 송현교회 1층
대상: 각 중학교 지도자 또는 대표
5. 안수식(11월22일) 참여모임
일시: 오후 15:00
장소: 교만관 314호

모임

1. 장로 예배시간

일시: 30(일) 4세부터 기도회
장소: 교만관 109호
2. 안수식(11월22일) 참여모임
일시: 31(일) 4세부터 기도회
장소: 교만관 109호
3. 교구위원회 회의
일시: 오후 15:30

- 장소: 선교관 2층
- 4. 이음 전도위원회 월례회 결 미를함
- 일시: 11월22(목) 11:00
- 장소: 영아부실
- 5. 권사전례 회의
- 일시: 오후 15:00
- 장소: 감리회

남녀전도회

- 1. 오찬 9시 회의
- 일시: 오후 9:00
- 장소: 송현교회 2층
- 2. 주미아 기도회 회의
- 일시: 31(일) 11:00
- 장소: 대명교회

별세

- 1. 김원복 선조
(연인인 장사, 김대우 장사, 부인, 15
교구 사당(11월) 19일 별세, 22일 장례
- 2. 박종국 헌양전사
(김복태 타교전사, 양산부 타교전사, 김태호
장사, 장례와 장사의 모인, 16교구 신부(1
일) 25일 별세, 27일 장례

결혼

- 1. 김진근(교만관 3세, 명호성 장도의 아들)과
서정경(장사, 명호성 장도의 딸, 9

11월 주일 및 수요일 기도 담양

월	일	주일에(장로)					전례(장로)		수요일(헌사)	
		I	II	III	IV	V	I	II	I	II
11	5	김진근	오정환	남선우	유정환	서동진	고광국	전현선	정영길	
	12	손 철	박영식	이희영	이종철	정영길	이지원	박영길	조영숙	
	19	안종국	최무진	이희영	이종철	정영길	이지원	박영길	조영숙	
	26	노광현	차진호	전종호	윤인원	한종국	김영은	최경상	이영자	

교구/31(일) 13:00 갈릴렘
2. 회중주 군(배우진 장로, 홍정선 권사의 아들,
1교구 유정환 장로(양산부) 안수식, 김진근
파전전사의 딸, 1교구/11월4(일) 13:00
갈릴렘

사무국 직원 모집

송현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를 섬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
집합니다.

1. 근무직 및 자격

- ① 영상-영양
35세 미만의 남·녀 불문
영상 및 영양관련 경력자

2. 제출서류

- ① 자기소개서(사신포함)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자격증 사본
- ④ 자기소개서
- ⑤ 교인인 영회장 추천서
- ※ 기타 서류는 채용 주 제출
- 3. 서류 제출 및 문의
- 송현교회 사무국
- (장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교만 402번)

남녀전도회 특별광고

- 1. 2001년도부터 남녀전도회의 연회
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오찬: 30-45세까지
-배우: 46세-55세
-배우: 56세 이상
- 2. 송회개회
11월 중 주간송회를 통해 회장 인
사자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각지회는
12월에 송회를 개최할 수 있도
록 준비하시 바랍니다.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감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부서의 회계는 10월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준비
하여 11월초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기간: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 2. 대상기관: 각위원회(신하 전부서) (단 남·녀 각 전도회는
전도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군, 경찰, 교정, 실업인, 이비, 등
학원 등 특수전도회는 본 감사대상 제외)
- 3. 제출서류: 시산표(11월1일부터 10월까지 전제시산
표) 회계장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내회계 또는 예
금통장(원장포함)
- 4. 감사실시기간: 11월 첫주부터 11월 마지막주일까지
- 5. 감사실시 장소: 제1교만관 208호 사무위원회실

송현중보의장

- ①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지하심으로 송현한 열매를 맺는 영적
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
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
하여 주시.
- ② 김창민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불타게 하시고, 모
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
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안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송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
룩한 전로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송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드리
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909	이동진	2	베드로		919	강현승	19	청년1부	천상순(6)
910	이수인	5	바울	권현숙(5)	920	정일라	19	청년1부	정금숙(13)
911	이원준	5	바울		921	한신	19	청년2부	
912	이은미	7	무디아	박대근(7)	922	윤부경	19	청년2부	장명자(6)
913	전광래	7	무디아	박대근(7)	923	이윤희	1	한나	정귀옥(1)
914	이은미	8	청년2부		924	이상원	19	청년2부	
915	김도영	12	베드로		925	이상인	19	청년2부	
916	이영희	12	베드로		926	이상은	19	청년1부	
917	박영옥	17	한나	임은경(17)	927	이세원	19	대학부	장순옥(5)
918	이지혜	19	청년1부						

송현교회의 한 기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정숙의' 성도를 소개합니다



천한 언니의 남편분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
니다. 지난해에는 대매매만 드렸는데 올해9월부터 새
가족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에 몇번
교회를 다니다 말았던 기억에 스스로 새가족부에 참석
해 신앙의 결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전도 하고 전도한 친구들을 잘 보살피는 마음이 예
쁜 자매입니다.

'이동은' 성도를 소개합니다



믿는 시댁으로 시집 와서 모두 송현교회에서 하나님
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집
회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했
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 다니는 것
이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을 지키며 마음이 편한이 온
다고 말하는 자매. 믿음 생활이 날로날로 하나님의 은
총 가운데 자라날 줄을 확신합니다.

한숙정(새가족부 통신원)

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의철 조순근 김은호 노광현
- 신재현 기복호
- 오진국 이병학 윤인원 최대원
- 전도위원회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 임영선 김도영 오정환 이훈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남선우 서동진 정영길 김영길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문종구 조인재 김중구 최무길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김진재 이상호 차진숙 김재형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박영길 김광남 이종서 윤상철
- 전도위원회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이영희 박만진 김진관 이병옥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안종국 최명환 임무현 이종섭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최기홍 이갑재 전종원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이정우 김단우 황영일 손 철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한종국 김영수 정종서 김한기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원종철 이혁수 안동원 황기만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김구형 최성원
- 제1교구위원회 제2교구위원회 제3교구위원회

■ 부목사

- 이종태 정현준 이승수 정갑진
- 정현민 조진수 김동하 차병문 김병태
- 김진식 서동진 정영석 이준경 박인기
- 이영기 류병호 조경호 임재훈 이종철
- 김영훈 이국근 김교성 송진환
- 교육목사 정준희 한수원
- 협동목사 윤영택 박영옥
- 선교사 이준규 안석원 정은희
- 이도원 주남 수진
- 찬양감독 장규민
- 김도사 김영기 하우구 이종태
- 어전도사
- 정영택 임태주 김장자 배옥민 최지혜
- 송창자 신동자 윤운익 김옥을 한영준
- 김진식 홍순애 이옥수 김만자 안태순
- 최효진 박영택 김정원
- 교정전도사 박당덕

■ 배혜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02:30	본당
	II 09:00	본당
	III 02:30	본당
	IV 02:30	본당
	V 02:30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영문예배)		
영문예배	02:30	본당
송현교회	1:00 11:00 12:00 7:00	본당
공요집회	02:30	본당
새가족교회	02:30	본당